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 · 편 · 틈**

연세대학교 제 17대 총여학생회

fenergyup@yonsei.ac.kr

www.yonsei.ac.kr/~ysfem

2005. 3호 6월 3일 발행

특집 가면놀이

여성주의 뒷보기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 페미니즘과 섹스

여성학 서평 She travel - 그녀들의 여행 이야기

어느 여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사이버일기 가이드 Ch2 용기 한 스푼

그녀, 틈 사이로 바리깡은 분다





2005.03

C O N T E N T S

02 특집 | 가면놀이

여는 글 • 02
간장달출 - 월월 날다! • 04
사선이라는 코드를 통해
나를 꾸민다는 것 그것에 대해 성찰하기 • 06
花 화 • 08
너의 목소리가 들려 • 11

12 여성주의 덕보기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 페미니즘과 섹스

15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맘대로 와작와작 미디어 씹기

18 영화속 삶, 삶속 영화

성매매, 무엇을 재현할 것인가?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재현은 가능한지 한 것일까?

20 어느 여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서바이벌 가이드

Ch2 용기 한 스론

22 여성학 서평

She travel - 그녀들의 여행 이야기

※ 즐거운 여자들의 산책 코너는 이갈의 건강 문제로 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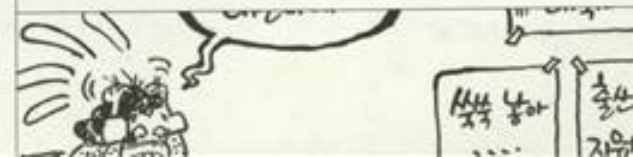
※ 여성주의로 만화읽기는 지폐와 편집팀의 사정으로 인해 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2호 '즐거운 여자들의 산책'의 이미지 출처를 밝힙니다.

p.12 - <http://blog.naver.com/poongumsori/120010162545>

p.13 - www.ildaro.com

※ 2호 '여성주의로 만화읽기' 코너 (씨우는 여성이며 우주를 통치하려웃음)의 본문에
서 '오로라 공주'를 '데일리 공주'로 장정합니다. 하도 '여성 하어로'가 없다 보니 한
들한들한 코스모스 같은 아가씨를 '여성 하어로'라며 농담 삼아 언급하라는 의도였는
데 재미 삼아 예길 하려다 보니 확인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
다. -지폐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본다.
기름기 번드르르한 얼굴에 푸석푸석한 머리.
그리고 생기 없는 표정.

새삼, 안면근육이 낯설다.
이리저리 꼼지락 거려본다.

하지만 계속 그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어서 씻고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옷장 앞에 섰다.
옷장에 걸려 있는 옷들은 모두 내게 익숙한 것들이다.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이 익숙한 옷들이 재미없어 보인다.
별로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정말 이상한 아침이다.

와실복으로 갈아입으려 잠옷을 벗어버린 몸은 속옷만 걸친 채 서있다.
거울 앞에 가서 선다.
그리고 걸쳤던 속옷마저 벗어본다.

매일 걸어다니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정도 지으며 지내왔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약간은 딱딱해 보인다.

내가 어떻게 걸어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평소에 무슨 표정을 잘 지었는지?

제자리 걸음도 해보고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도 걸어보고
이리저리 갖가지 표정도 만들어본다.

하지만, 후나 어색하다.
내가 평소에 하고 다녔을 모습과는 조금 다른 듯 하다.

아차, 이리다 수업에 늦겠다.

허겁지겁 옷장 앞으로 다시 달려가 자주 입던 옷을 꺼내어 입는다.
학교 다녀올게 엄마한테 머리 뒤로 인사를 건네고
지하철역으로 마구 달린다.

달리면서 조금 전에 보았던 내 몸을 떠올려본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던 내 몸을 생각하면서 지하철역을 향해 마구 달린다.
거울 앞에서 조금 뽀뽀하고 어색하게 보였던 내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

매일 아침을 이렇게 허겁지겁 달렸음에도
오늘 아침엔
원지
기분이 좋다.

특집 여는 글



이번 특집에서는 “나를 드러내기”에 대해서 써보기로 하였다.

“나를 드러내기”

그것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가능하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온전히 나의 것일 수 없었다.
평소에 취하는 자세, 목소리, 눈동자의 움직임, 그리고 감정의 표출까지도 무언지
모르는 것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긴장해 있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응시해보았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보았다.

하지만 자세, 목소리, 시선, 감정의 표출에 대해서 응시,
관찰의 방법으로는 무언가를 캐취해낼 수 없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나의 역사 안에서 발견해야 했고,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토닥, 쟁, 풀문, 식초의 글들을 통해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해 있던, 억눌려 있었던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내 모습 속에는 한 여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
안녕?

by_ 고레 never i don't know



긴장탈출 - 훨훨 날다!

가슴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어찌나 당혹스러웠던지. 초등학교 4학년, 처음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몽우리를 발견했을 때의 절망을 기억한다. 내게 가슴이 나온다는 것은—그렇게도 되기 싫었던—여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앗, 그렇다고 프로이트의 남근선망 따위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가슴이 생기기 전의 나에게는 성이 없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가슴이 생겼고 앞으로는 월경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남자아이들은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는 어른이 되어야 하다니! 그럼 이제 사뿐사뿐 걷고 어디 있을 때도 조심하고 그 좋아하는 고무줄도 할 수 없다는 것이야? 나는 그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기 까지 했다. (무지 아팠다;) 가슴이 생긴다는 것, 여자가 된다는 것이 불러온 혼란은 내 어깨를 움츠려들게 했다.

어? 그런데 살다 보니 막상 또 그런 것은 아니더라. 내게는 예전보다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생각처럼 갑자기 숙녀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어렸던 나는 '아직은 괜찮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숙녀가 되지 않아도 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점점 숙녀가 되어가는 것이겠지. 대학생 됨 되면 나는 예쁜 옷을 입고 사뿐사뿐 걷고 있겠지. 휴.. 다행이다. 잠시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보란 듯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여태껏 해온 그대로 망아지 마냥 뛰어다녔다. 중학교 때 치마를 입었을지언정 우리는 못하는 일이 없었다. 속치마를 찢어먹을 정도로 나의 보복은 컸고 우리들은 점심시간 때 고무줄을 하곤 했다. 가끔은 담도 뛰어 넘었다. 중 고등학교 때의 나는 내가 입고 싶은 편한 옷을 입었고 내 몸은 자유로웠다. 고등학교 교복이었던 어설픈게나마 몸 라인이 드러나는 불편한 재킷도 내 몸을 가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유예기간은 끝났다. 나는 의외로 순순히 그것에 따랐다.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어른이 되는 방식이었으니까. 대학교에 들어간 나는 나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치마와 블라우스를 걸치게 되었다. 높은 굽의 구두도 새로웠고, 나는 그 모든 것에 맞추어 나의 자세를 교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음껏 뛰놀 수 없는 대신 나는 요조숙녀가 되었다. 나의 활동공간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feminine한 옷에 내 몸을 적용시켰다. 다양했던 내 몸 동작들은 몇 가지의 긴장된 자세들로 한정되었다. 나중엔 내가 걸친 것들의 옥죄음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조차 자연스레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이힐의 좁은 가죽에 발을 가두는 것
발걸음 발걸음마다 긴장을 실으며
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피곤하게 했는지
팽팽하게 담겨져 올라간 다리 근육의 긴장과
생전 저 본 적이 없던 하중을 이겨내야 했던
내 발가락의 긴장
구두를 신고 언덕을 올라갈 때면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내 허리
앗 또 있다. 적당히 불룩하게 나온— 사실은
귀엽기까지 한— 배를 감추기 위해
남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애써 함주어
배를 집어넣어야 했던 나
수업시간 5분전 정문 앞 횡단보도,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하나 둘 나를 스쳐감에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긴장되고 어색한 포즈로
천천히 뛰어 간냈던 나, 그리고 수많은 그녀들.

내 몸은 언제부터 그 많은 긴장을 견뎌내야 했던 걸까
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힘차게 뛰어다녔는데
무엇이 자유로웠던 내 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느 날 긴장된 자세가 풀어지면서 온 몸이 자유로이 움직였던 순간을 기억한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블라우스와 치마에 구두를 신고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며 중학교 때 유행했던 펌프의 발판에 올라선 적이 있었다.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라들을 타려 했지만 긴장에 갇혀 있는 내 몸은 소심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어색한 포즈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것 마냥 펌프를 하다 나도 모르게 몸의 긴장을 놓았다. 그 순간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숙녀의 옷(?)을 입고 딱딱한 구두를 신었지만 예전처럼 내 몸은 움직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가 조금은 어색했지만 엉거주춤하지 않고 힘차게 움직이는 것은 예전처럼 즐거웠다. 그날 내 온 몸이 오랜만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 원고: 원작과 함께 화면에 표시되는 화질비에 맞추어 정면을 읽는 국내산 리플렛전용인 COF를 제치고 수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내 몸이 지르는 비명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내 몸을 긴장에서 놓아주어 훨훨 날게 하는 것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요조숙녀의 모습이 아니다. 내 몸을 긴장 속에 가두면서 걸모습을 다듬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나도 아는데..... 그렇다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건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답답할 때면 백안로를 가볍게 뛰어보고 싶다.
청바지와 티셔츠에 운동화면 더 편하겠지만
아무렴 어떡하 이제 어떤 옷도
그 무엇도 나를 경직되게 할 수 없다.

바람을 스치며 달리다 보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자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뭘? 그래도 힐 신고 육상선수처럼 뛰는 건 내게 무리다!

시선이라는 코드를 통해 나를 꾸민다는 것, 그것에 대해 성찰하기

매년 2월, 봄이 아직 그 고개를 내밀기 전, 베니스에서 열리는 가면 축제. 이 축제 기간동안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 속에서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사람들에게 그 가면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해열제일게다.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켜여져 있던 고정된 역할과 이미지에서 벗어나 달콤한 해방감을 잠시라도 맛보는 것과 같이 기분 좋은 해열제는 아마 없을 테니까.

2005년 5월, 봄의 무대가 되창하고 여름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는 또 다른 가면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축제의 시작과 끝을 도통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이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쉽지 않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얼굴에 맞는 가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지만, 그 활보가 베니스의 그것과는 다르게 자유로워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그 가면이 어느 순간 그 가면의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깨달았다. 베니스에서 해방감을 선사해주었던 해열제가 여기에서는 결코려운 좌약으로 변모해버렸다는 사실을.

베니스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가면 무도회가 나에게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나는 페르조나(사회적 가면)를 다듬거리며 찾는다. 그러나 나에게 "나를 꾸민다"는 것은 옷, 구두, 가방, 화장과 같은 비주얼한 아이템뿐 아니라, 나의 시선을 다듬고 거기다가 옷을 입히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쌍꺼풀이 없는 나의 기다란 눈매가 매우 강해 보인다고 했다. 나는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눈에 힘을 빼고 웃어봐'라는 세상의 주문을 받아들였고, 어느 덧 입꼬리가 올라가는 미소를 짓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미소를 지어 봐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뭔가 어색하기만 했다. 결국 시선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나는 시선의 주도권을 서서히 놓아버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동동한 수평선에서 응시하는 것을(그것이 아무리 자연스럽다고 해도) 무의식적인 강한 도전의 제의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자꾸 사람들의 시선의 대상이 되어갔다. 그리고

나의 시선은 텅 빈 공간만을 훑고 있었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 바라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약간 비껴난 허공을 가볍게 응시하는 것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소위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선을 이동할 때는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아마도 비스듬하게 어긋난 사선 방향으로 나의 시선을 놓아두는 것은 강한 도전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나보다. 나의 눈은 어느 한 지점을 다소곳히 응시하며 조산하게 행동하게 하는 인형의 창백한 눈이 되어갔다. 나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무의식적인 요구는 나의 눈매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 같은 눈매를 가지지 않은 여성에게도 이런 주문이 요구된다는 것을. 많은 여성들의 시선 역시 나의 시선처럼 온순하며 정지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의 시선은 많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연애에 대한 성공적인(?)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책들을 훑어 보면,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을 알려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선 처리에 대한 언급을 꼭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책들은 한결 같이 시선을 한 곳에 곧게 놓아두라는 당부하고 있다. 나 또한 어느 순간부터 온순하면서도 정지된 시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그 정적인 시선이 여성적인 매력으로 보여지는 세상에서 시선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나의 눈동자는 제한된 운동만을 하고 있다. 온순하게 다듬어진 나의 시선은 그 무언가에 포박되어 그 활동 반경이 축소되어 간다. 나의 경직된 시선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탐색할 만큼 넓은 시야를 가지기가 힘들었다. 시선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인과 세상의 시선에 의해 포박되어 결국 나의 시선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는 나의 수동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정적이고 활동성이 결여된 그 시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포획할 수 없는 빈약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시선은 진정 나의 것일까? 혹시 나는 내 자신에게 향하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의 시선을 다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선에도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면, 아마 시선의 활동이 자유로운 자는 권력을 가진 자일게다. 나는 그 권력을 누군가에게 양도해버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타



표정심, 눈은 창백

인들의 시선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스스로를 객체적 존재로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하자, 나의 시선마저 그 누군가의 시선을 대변하게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나의 시선마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이중성을 직면한 지금, 나는 내 시선의 주도권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심한다.

포박된 나의 시선이 자유롭게 풀리게 될 어느 날을 상상해 본다. 나는 짐 박을 나오면서 햇살 한 아름 안고 있는 파아란 하늘을 한 눈에 담기 위해, 여기 저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세상을 포착해보기 위해 눈동자를 여기 저기 굴러보기도 하고 목도 회전해보고 몸까지 움직여 본다. 시선이 자유로워지자 나의 몸도 자유로워진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이 몸짓은 내 몸을 활동적인 몸으로 만드는 작업 같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다듬어보고 싶다. 눈동자를 레이저 빔처럼 4차원의 영역으로 마구 쏘아대어 세상을 탐색해보는 건 어떨까? 포박된 시선을 풀어주자, 우리의 시선에 걸린 포획물이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50 여성의 시선으로 남성의 몸을 다듬거나 보여주는 포르노는 없다. 여성의 시선으로 남성(물이나 물) 응시하는 것은 강력한 도전인가? 많은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성의 시선으로 남성들의 작품을 소화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태껏 나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을 소화하여 왔던 것일까? 나의 시선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민정**

by. 물론 뿌리 뽑힌 망명자로 살기 무단히 해대는 노마드 되기



花



인형같은 여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영원히 우리 할머니야. 곱게 빗어 올린 새하얀 머리카락에 조용하게 소리를 울조리며 서예를 하고 언제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자세로 책을 읽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의 이미지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우리 할머니는.. 맞아. 참 특별하게 예뻐. 다른 할머니들처럼 크게 소리를 내어 말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곱고 작은 몸동작으로 날 쓰다듬어 주었고, 지나치게 크게 웃거나 울거나 하지도 않으셨지. 언제나 조용하셨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큰 빛을 내는 그런 여자였어. 언젠가 한번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맘을 속상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우리 할머니는 나만 있는 어두운 방으로 오셔서 남몰래 조용히 눈물을 지으시는 거야. 할머니를 울린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미웠지만,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할아버지를 보듬어주는 할머니가 어린 내 눈에는 얼마나 천사같았는지...

그 때 부터였던 것 같아. 꿈을 꾸면서도 쉽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화가 나는데도 그저 나에게 화풀이 하기 시작한 시점. 그런 할머니가 아름다운 여자라 각인되어 있었으니.. 말 안해도 알만하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혼자 청승 떨면서 살아왔을지....

사람을 가리는 성격이 있는 나는 좋아하는 사람 몇 명에게만 많이 기대버리는 편이야.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나의 질투나 야속함들이 내 안에서 밖으로 적절히 나오지 않은 채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쳐 놓기도 해.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밖으로 나와 버리는 순간, 진실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성질이 있잖아. 특히 내 안에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더욱이 그걸 어떻게 말로 풀어내야 하는지 난 도저히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화가 나면 말 못하고 목이 메어서 쾅쾅대다가 울어버리고, 뒤에서 혼자 공중거리기 일쑤야. 나름대로는 기껏 화를 내보아도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는 내가 무서운 얼굴로 대들지 않으면 쉽게 무시해버리고 내가 화나 있는 상태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버리니까..

그냥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리는 것이 쉬워보이지만, 내게는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어. 눈과 귀로 느낄 수 있는 속임수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또렷하게 풀어내는 방법.

난 언제부터가 사람들이 내뿜는 에너지가 담긴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지쳐가고 있었어. 그래서 나까지 화내기 보다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사람들의 고막을 건드리지 않고도 허공에 수많은 내 안의 메시지를 쏟아내면 진심과 진심이 우리 사이의 기류를 타고 흘러 자연스럽게 전해질거라 합리화해버린 거지.

마음에 안드는 사람 앞에서 욕을 하고 싶을 때는 나만의 언어 사전에서 가장 못된 말들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속으로 욕을 중얼중얼 거리는 식이야.

아니면 혼자 보는 일기장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상스러운 말들을 잔뜩 써두던가. '낮에 만난 그 섹스자식, 내가 언젠가 너 가만히 안 놔둘거야. 널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릴거야. 잘근 잘근 씹어줄거야. 너 앞에서 웃고 있어도 난 사실 너 싫어!!' (매우 순화되었음) 어찌면 평생 가도 그런 말을 직접 해버리는 꿈만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내 꿈 속에서는 언제나 몇 사람이 단골로 나와서 단두대에 놓여... ::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일기장이 공개되버릴 생각으로 마음편히 눈감지 못할거 같아. 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그 일기장을 남모르게 폐기해 버려야하는데.. ㅋㅋ)

그리고, 난 나름대로 화를 낸다고 내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는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내가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 때는 정말 tv 속 터프한 남자들이 그러듯이 아주 권위적이고 낮은 목소리로 크게 고함을 지르고 주위에 있는 물건도 집어던지고 가끔 뺨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야.

하지만, 난 그렇게 폭력적이고 차갑고 무서운 건 싫단 말야. 그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게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행동이잖아. 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도 상처주는 것도 싫은데..

내가 아무리 화가 나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내가 화를 내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뜻이니까. 아왕이면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 뿐이란 말이야.



이유진 작

마음에 안드는 사람 앞에서
욕을 하고 싶을 때는
나만의 언어 사전에서
가장 못된 말들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속으로 욕을
중얼중얼 거리는 식이야.

나도 차갑고 쌀쌀한 얼굴로 도대체 왜 날 화나게 만드냐고. 당신 왜 그만 식으로 사느냐고. 무시무시하게 큰 소리로 욕박질러 버릴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식으로 화를 내버리는 건 정말 싫어.

조용하게, 가끔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드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사람들은 정말 '나 화났어요' 라고 찍어진 무시무시한 얼굴로 꽃병을 집어던져야만 화내고 있는 내 목소리에 제대로

귀기울여 줄까? 그렇게 억지로 힘을 과시하는 폭력적인 방법이 정말 효과적인 화내기 방식인걸까?

얼마전에 가족들끼리 놀러간 여행지에서 아빠랑 마구 싸운 적이 있었어. 싸운 것도 아니지. 내가 또 일방적으로 통제 있었던지니까. 아빠한테 내 진로에 대해 설득시키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내 능력부족으로 내 의견이 잘 전달되지 않아버리자, 혼자서 막 짜증을 내버렸고 그런 날 아빠가 또 꾸중한 거야. 내 안에 하고 싶은 말들과 감정들이 아무렇게나 잔뜩 쌓여있는데 제대로 꺼내놓지 못하니까 계속 오해만 쌓이고, 쓸데없는 눈물만 흐르고..

며칠 뒤 정신을 차리고 아빠한테 편지를 썼고, 메모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아주 "어리숙하게" 아빠와 대화를 이끌어 나갔지. 그나마 아빠와의 소통도 이 모양인데 가족 아닌 남들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은 얼마나 불명확하겠어. 안봐도 뻔하지. 화가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안하고 독하니 연락을 끊어버린다면, 그냥 상황을 넘겨버린다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표정을 짓고, 감정이 앞서서 논리적으로 말도 못하고, 무섭고 싫은 소리는 하기 싫어서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때는 더더욱) 좋게 말하고 넘어가면 결국 아무것도 변한 건 없고.

그런데 더 우스운 건, 그렇게 화를 참아내는 스스로를 꽤 대견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야. 다른 사람이 날 공격해오거나 나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싸우지 않고 피하고 있는 약한 내 모습을 희생하고 혼자 눈물짓는 할머니의 감싸안을 같은 아름다움의 이미지로 억지 포장해 온거지.

하지만, 갈수록 이 세상은 빨라지니까 눈과 귀로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만을 위해, 더 소리높여 주장해야 하고, 나를 끊임없이 표현해야 하고, 더 크게 내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그럴 수록 조용한 새싹들은 혼자 자기의 말을 삼켜버리게 되면서 나무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눈물로 진주를 만드는 어머니 라는 시와 함께 그려진 삽화



비장하고 무서운 얼굴로
고함치지 않는 그녀들의 작은 목소리 속에도
그 누구도 못지 않은 뜨거운 무언가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속 엄마의 이미지가 너무 예뻐 보였고 할아버지께 대들지 않고 혼자 눈물지으시던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지만, 어쩌면 그녀들은 평생 너무나도 외로웠을지도 몰라.

지금 우리 가까이에도 수많은 조용한 여자들이 속으로는 끊임없이 재잘거리면서도 스스로 자처한,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기가막힌 외로움과 끊임없이 혼자서 싸워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비장하고 무서운 얼굴로 고함치지 않는 그녀들의 작은 목소리 속에도 그 누구도 못지 않은 뜨거운 무언가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그녀들이 아주 가끔씩, 조용하고 부드럽게 살포시 마음 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놓을때, 그 작은 목소리라도 진지하게 귀기울이고 들어 준다면, 그래서 더 많은 그녀들의 마음이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영혼의 진심이 통하는 관계의 끈으로 묶인 이 세상은 분명히 예전보다 더 따뜻해질거야. 작고 연약한 것들이 힘을 얻게 될 때 세상은 진정 아름다워진다고 믿으니까. 

by_ 식초 이빨이 너무 아파도 용감하게
비밀밥을 먹는 강으로 세상살기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굵고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어색해 하는 것처럼, 그녀도 언젠가 뽀뽀 안내멘트를 녹음한 뒤 자신의 목소리에 어색함을 느끼기는 했다. 하지만 단지 그 뿐이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특별히 더 낮거나 특별히 더 굵아서 다른 친구들이 그 목소리 자체에 주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 물론 그녀가 박경림과 같은 유명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에 그녀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학교 친구들 정도였다. 자신의 목소리에 별다른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었던 그녀는 중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운이 좋아 <별이 빛나는 밤에> 작가와 통화를 할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작가는 그녀가 중학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나이 또래 여자아이들에 비해 너무 굵고 낮았기 때문이었다. 라디오 작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잠시 의기소침해졌다.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간 그녀는 학교 친구들로부터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다. 변성기를 지나면서 목소리가 변했던 탓일까? 어렸을 때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목소리에 대해 친구들이 일상적으로 한두 마디씩 던지자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그저 '네'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파장이었던 친구는 '교실에 오빠가 있는 줄 알았어.'라고 하며 키득거렸다. 그녀는 여자 친구들에 비해 목소리가 크고 낮고 굵은 편이라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종종 '남자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가 고운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자신도 고운 목소리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목소리 때문에 겪은 우여곡절이 있는지라 그녀는 어느 날부터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도 한 걸 같이 굵고 낮은 것은 아님

을 느꼈다. 전화통화를 할 때는 더 낮아지고, 친한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 때는 더 커지면서 약간 높아지고, 애인과 있을 때는 약간 높아지고 비음이 섞이고, 회의나 발표를 할 때는 단호해지고... 자신의 성대는 굵고 낮은 목소리밖에 못 낸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목소리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했다. 분명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럭저럭 높은 목소리를 내며 예고도 부릴 수 있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던 것이다. 물론 평소에는 대체로 굵고 낮은 톤으로 말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높은 톤으로 말하는 일은 잘 없지만 말이다.

더러 그녀의 목소리가 멋지다 혹은 독특하다고 말하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높고 여린 목소리를 지닌 많은 여자 친구들과 상반된 음색을 내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면서 특색 있어 보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범상치 않은 목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 아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때로는 그저 그녀가 편하게 내는 목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는 것에 그녀는 신경이 곤두서기도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깥부터 안까지, 모두 다 이야깃거리가 되는구나. 그녀는 연예인도 아닌데.

"목소리가 특이하네." "남자 목소리 같아." "절절하네." "저음이라서 잘 안 들려."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난 줄 몰랐어." "원래부터 그랬니?" 한동안 그녀는 '내 목소리에 신경 좀 쓰지 마!'라고 울부짖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웃어넘긴다. (씨익) 그리고 덧붙인다. "네,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해서 특이하죠." (빙긋) 그리고 물어저라 뻔히 쳐다본다. (숨어 있는 말, 그래서 어찌시자는 건지?) 

by 평



http://blog.naver.com/hoguz/20000754860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 페미니즘과 섹스



나혜석 자화상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을 주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물론 한 여자들이라느니, 페미니즘은 곧 여자들이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것이라느니 하는 누가 말한 건지 알 수 없는 왜곡된 인식이 여러 시대와 여러 지역에 퍼지곤 했다.

페미니즘이 곧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비난은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 자주 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90년에서 100년 전의 여성해방이라는 사상은 연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었다. 나혜석으로 대표되는 당시 '신여성'들의 여성주의는 마치 성적 방종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의 윤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여겨졌고, 가족제도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여성은 곧 신세를 망친다고 하는 인식도 있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인지, 현재 한국사회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들의 성적인 자유에 대한 주장에 매우 조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기실, 섹스를 많이 한다거나, 여러 남자를 거느린다거나 하는 양적 혹은 단면적인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매우 일차적인 차원에서는 기존의 성과 관련된 도덕 혹은 제도들이 성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섹슈얼리티가 사회를 재편하는 기제가 되고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면밀한 고찰로 이어진다. 섹슈얼리티는 가족이나 성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계, 국가

와 국민의 관계, 국제적인 산업과 시장 등 모든 것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된다. 따라서 페미니즘이 성에 대해 중요하게 발언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섹스 혹은 어떤 성적 지향성만을 이야기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1900년대 초반 한국에 있었던 여성주의가 자유연애를 주장했던 이유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1)과 사귀거나 섹스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 이유에서라면 아마 조선시대 내내 여성주의가 꽃피었을 것이다. 그 여성들은 여성의 '정조'가 '가치'를 획득하는 당시의 질서가 도통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남성들이 축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성들은 '정조' 하나로 그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 또 이러한 이중적인 성관념으로 짜여진 남성혈통중심의 가족제도, '정조' 때문에 그 어떤 활동도 자유롭게 하기 힘든 사회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 '자유연애'의 슬로건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당시 여성들이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나 할 수 있는 활동은 모두 '정조'라는 관념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도시가 발달하고 많은 여성들이 새롭게

생겨난 직업을 택하여 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여성들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수군거렸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관해서는 최혜실『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김진송『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 김경일『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김박세상『20세기 여성 사건』 및 신여성에 관한 모든 책들, 1920년대가 들어간 연구서나 책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도 그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

내가 대학에 들어오고, 또 여성주의를 만났을 때 가장 해방감을 느꼈던 부분 역시 성에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순결'에 대해 무언가 낭만화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뭐가 어찌되든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반드시 남자여야)과 젊은 청춘의 어느 날 결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첫날밤에 첫 키스를 하면 멋있을 것이라는 등의 상상을 하곤 했다. 당시 난 확실히 내 도래 그 누구보다도 뭘 좀 모르는 애였던 것 같다. 여성주의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해방감을 느끼게 된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프리섹스'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엄청 걱정됨) 그 첫 번째의 해방감은, 내가 내 몸을 자세히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특이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데 있었다.



목심현, 일요일 오후3시

내 몸을 좀 더 당당한 마음과 다양한 각도로 비춰보고, 또 이런 저런 책들을 읽으며 몰랐던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녀막' 따위의 신화는 깨져버린 것이 당연하다. 그러자 곧, '순결'이 얼마나 허구적인 관념이며, 부조리한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해방감은 성에 대한 내 느낌과 생각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난 데에서 생겼다. 2001년도에 참여 학생회 활동을 했을 때 성교육 행사를 학관 앞과 같이 공적인 장소라는 의미가 강한 곳에서 열었던 때에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을 위해 훨씬 좋다고 하는 의미에서였다. 그러나 내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나누었던 성에 대한 얘기들은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성기결합 중심적, 남성들이 가지는 판타지 중심적인 성의 이야기들이 여성들에게는 즐겁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남성 중심적인 성 담론은 사실상 TV나 인터넷 등 '공적 장소'에서 얼마든지 얘기되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열어놓고 얘기하자'라고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오명을 얻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여성주의자들과 그런 공간을 공유했다. 사실상 페미니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러한 해방감을 느낀 이후에야 내가 성적인 것을 내게 안전하고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즐길 권리가 있다는 또 하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순결'에 대해 무언가 낭만화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뭐가 어찌되든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반드시 남자여야)과 젊은 청춘의 어느 날 결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첫날밤에 첫 키스를 하면 멋있을 것이라는 등의 상상을 하곤 했다



나의 해방감이 생겨났다. 평생 동안 단 한 번 사랑할 오직 한 사람의 이성과 결혼하고 그 사람과만 성관계를 가지는 각본 (2.3백년쯤 전에 만들어진, 평생 딱 한번 일어나는 사랑-성-결혼의 합체 스토리)은 내가, 또 내 주변의 그 누군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의 단 하나일 뿐(이미 폐기한 선택이지만), 다른 형태의 삶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되었다. 이렇게 나는 성적으로 즐거워하거나 성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 죄책감 같은 것들을 많이 벗어던질 수 있게 되었다. 여성주의를 처음 접했을 무렵에는 결혼할 때 내 처녀성의 훼손이 나의 결점으로 일하면 손해-결코 윤리적인 이유가 아닌-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난 '순결을 지키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 권리를 분명하게 자각한 이후에는, 처녀성 따위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 따위는 안 만나는 게 더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남성의 상대가 되는, 처녀의 가치를 지니거나, 이상화된 섹시함을 갖춘 내가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잘 알고,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성적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했다. 성적 존재라는 것은 성적 대상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다. 여성이 성적 대상

화가 되는 경우는, 그 여성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 여성을 응시하는 시선이 그 여성을 성적으로 여기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성을 자신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더 잘 이해하고 의식하며,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뜻이 분명하게 다가왔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반(反)성폭력 운동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나 잘 알아야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듯이, 성적인 것도 잘 알아야 '결정'을 할 힘이 생긴다. 성적인 행위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아는 여성들은, 이러저러한 행동이 성적인지 아닌지, 또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성관계를 많이 가져야지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좀 더 자신을 세심하고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시각-나는 그것으로 '페미니즘'을 채택했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이 힘을 주는 시각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을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성관계를 많이 해보더라도 그저 '섹스가 다 똑같지 뭐'인 사람이 있고, 성관계를 안 해보더라도 어떤 식의 행동이나 언어가 자신이 좋아하는 성적인 코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몸과 요구를 무심히 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 노력을 통해 '자기 결정권'을 얻게 되면, 단지 성적인 면에서만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싫다'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부끄러워서 차마 얘기하지 못하던 성에 관련된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또 다른 일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성들이 성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언어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함께 밟아가는 것이다. **이혜영**

by_ 술래 혼란은 가중된다.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맘대로
'와작와작'
미디어 씹기

(지나간) 가정의 달 특집 (호호호!)

〈그녀, 틈 사이로 바람을 불다〉 3호가 나왔을 때면 6월이 되어 있겠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5월. 계절의 여왕이며 축제의 달이며 행사의 달이며 심지어 가정의 달이기도 한(p) 5월에는 재미난 일이 가득하고 아이들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꽃도 자란다는데, 본인은 아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니어서 자라지도 않고 재미난 일은 커녕 인생 꼬이는 일들만 주구장창 일어나고 있어 애라이, 팔대로 되라~ 상태에 빠져 있는 중. 이러한 심리 상태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세상에 악한 기운을 마구마구 불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초, 아이주 오오오랜만에 국회로부터 희망찬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으니 바로 '부부강간 처벌조항이 만들어질지도 몰라!'라는 것. 열린우리당에서 부부 강간을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특별법 개정안을 5월 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도 이를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에 태권브이가 나타나 국회의사당 안에서 세금 낭비하는 사람들 주먹으로 한대씩 쥐어박아주길 바라던 날도 오오오오랜만에 박수 한 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권력의 차등이 존재하는 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특히나 남편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아내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결부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미 상해를 입은 아내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주어 자존감을 손상시키며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결혼한 여성의 심신을 모두 파괴하는 결과를

미디어와작 미디언 씹기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라거나 '부부간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이 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 만만세 의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이슈화하기 어려워서 그 심각성이 더더욱 큰 문제. 게다가 최근 들어 장기간의 아내 폭력 및 가정 폭력-아내 혹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언어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쓴 말-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어온 여성들이 우발적으로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일어나 해결책(까지 안된다면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도!)이 더더욱 절실한 상황.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저런 개정안을 당론으로 삼아 추진한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것. 그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날카롭게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

그런데 칭찬을 못할망정 아직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초장부터 아주 인상 락 쓰고 재를 퍼먹 뿌려대는 언론사들이 있으니,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으나 우선은 5월 3일 조선일보 만물상에 실린 기사를 한 번 살펴볼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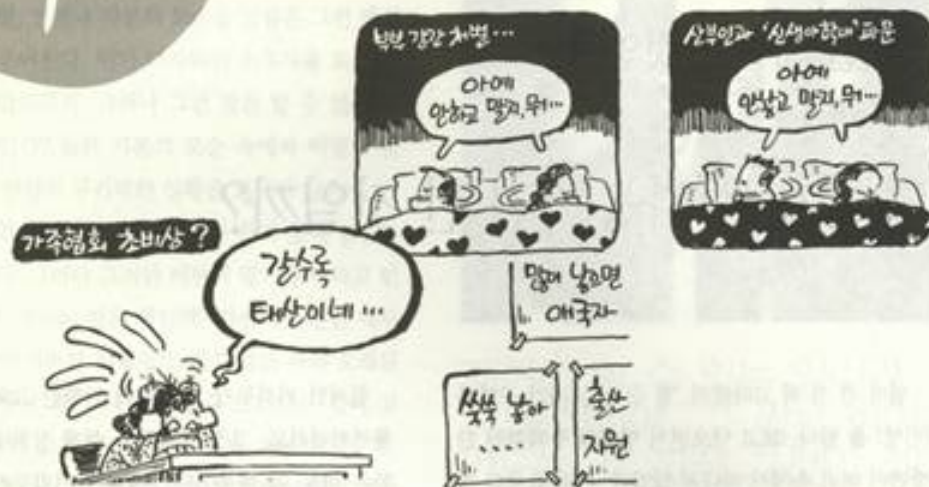


(앞부분 생략)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민법 826조 1항). 우리는 민법상 동거의무에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유력했다. 대법원 판례도 부부 사이 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이 부부 강간죄를 도입하는 가정 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낸다고 한다. 아당도 찬성하고 있어서 도입 가능성이 높다. 도를 넘는 폭력과 강압은 막아야겠지만 전통적 가족 정서와 어긋나는 구성도 없지 않다. 찬반을 떠나 가장 내밀한 침실까지 법의 도마에 오르는 현실에서 가정의 황폐화와 위기를 본다.

은근히 중립적인 척...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질게 풍기고 있는 '부부 강간죄라니, 맘에 안들어!' 분위기 보거나, 부부 강간이 대부분 폭력과 동반 발생하며 장기간에 걸쳐

아내 폭력 혹은 가정 가정 폭력 문제를 가부장적 막강한 권력이 지배하는 가족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그냥 가해를 참고 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당연한 소리를 왜 못 알아듣는지...

피해자의 심신을 파괴하게 만드는 끔찍한 문제라는 점은 슬쩍 못 본 척하고 그냥 아내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커서 섹스를 하게 되면 부부 강간'이라며 악의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켜 버리는 몰타기. '부부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를 서로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므로 한쪽에서 싫다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볼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 안했는데 뭘 개정하겠다고 그래!'라며 대법원의 권위를 빌려 부부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태클거는 비난이 함께 들어있는 최악의 기사. '~했지만' 이후는 뭐라고 이야기할 맛도 안 나버릴 정도인데... (아휴, 짜증) <전통적 가족 정서>가 현실에서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을 누리는 커녕 악몽에 시달린다면 폐기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고, 가장 내밀한 침실 문제를 왜 법으로... 어찌구 저찌구' 등등 하는 소리야말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며 아내 폭력 혹은 가정 가정 폭력 문제를 가부장의 막강한 권력이 지배하는 가족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그냥 가해를 참고 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당연한 소리를 왜 못 알아듣는지 그저 답답갑갑막막구질구질구질.....

이후 신생아 학대 사건(다들 아시리라 믿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이 한참 문제가 되었을 즈음에는 신생아 학대와 부부강간 처벌로 인해 부부들이 '아예 안하고 말지 뭐~', '아예 안하고 말지 뭐~' 하고 돌아누움으로써 출산율이 떨어지고 가족협화에 비상이 걸린다는, 그야말로 이게 만병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을 당당히도 지면에 찍어냄으로써 '역시 조선일보'라는 감탄사 토해냄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게 만들었으니, 이 어찌 대단한 재주가 아닐 수 없으리.

온라인에서 선정적인 기사 쓰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헤럴드 관련자들,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쏘냐! 곧바로 <성폭행 일주... 아내가 무서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아내 강간만 얘기하지 말고 남편 강간도 얘기하셈~' 이라면서 논점 완전히 흐려버리기에 일조. '성생활의 반전이 일어나면 아내의 남편 폭력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남성의 경제력이나 가부장제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는 소리를 우려하고 써 놓은 것과 이 기사에서 말하는 성역할이 '실지

(하고 살림)한 남편-일하는 아내'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보니 헤럴드지는 성역할의 반전이 일탈적이고 지양해야 할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가부장제의 권위를 살리자! 는 주장을 가지고 계신 듯? 그저 기가 막힐 뿐.

결국 부부간에 왜 강간? 이라는 소리가 이어지면 때에 비하면 세상이 좋아졌나봐~라며 즐거워하려고 하던 내 마음은 다시 좋아지긴 개뿔이! T로 전환. 개정 발의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난리 법식들을 피우고 있으니, 발의 과정의 어려움과 발의하는 여성 대표 의원에게 섹도할 원색적 비난들은 안봐도 DVD. '아내 몸=남편꺼' 라고 박박 우기면서 가부장제를 조금이라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는 24시간 경비태세 가동에 들어가는 사회이라니, 도대체 몇 세기야? 하고 달력을 보니 확실히 2005년. 전근대와 근대와 근대 이후가 이렇게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다양성 넘침이라니(젠장)! '제발 법안 발의가 무사히 잘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라고 우리 모두 기원 한번 해 봄이 어떨는지. **진심**

by_ 솔레 와라 여름엔 어디 얼마나 더운지 보자!

성매매.. 무엇을 재현할 것인가?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재현은 가능하긴 한 것일까?

얼마 전 장 뤽 고다르의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인생)'을 봤다. 보고 나오면서 영화의 충격적인 한 장면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돈과 육체의 매매 상황을 마치 하나의 기계 작동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이없는 장면. 그 극도로 회화화된 그러나 감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 못할 감독의 조롱을 나는 단지, 무감하게, 듣고 있어야만 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삶이란 매춘 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는 그의 기본적인 태도 때문일까? 이 좌파 감독의 작품에는 유독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고 한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본 그의 영화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다루고 있었다. 그 때 마다 나는 성매매에 대한 그의 태도는 냉정하다 못해 건조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http://blog.naver.com/kyahq/100000977420>

철저한 거리두기, 성매매에 관한 그의 영화가 불편하면서도, 그것에 관한 쉽게 정의내리지 못하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게 거리두기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나의 이 모순적 태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실 그의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입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한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되고 결국엔 마치 짐작처럼 내팽겨쳐 죽는(영화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 영화 *Vivre Sa Vie*에서 관객은 그냥 바라볼 뿐이다.

그러나 실상에 대한 기록 영화처럼 그렇게 철저히 거리를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주인공 나나가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을 맡기며 춤추는 장면은 그 어떤 영화 속 장면보다 긴 여운을 남긴다. 처절한 상황에서 아주 짧게 맛보는 그 실존의 순간, 어떤 감정이입보다도 더 큰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단 한 컷에 불과한 그 장면 때문에 고다르의 그 건조한 거리두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태도를 단순히 무심함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자본의 모순을 말함은 왜 매춘이란 메타포로서만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지만) 왜 항상 자기를 재현할 어떠한 도구도 갖지 못한 소수자의 몸을 비로소야 그 모순을 인지할 수 있던 말인가?

'영화는 창부의 자식'이라는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의 말처럼, 언제나 자본의 모순을 말함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타자화된 소수자를 또 다시 타자화 함으로써,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물론 자본의 모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한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나 역시 그런 상황에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해 갑갑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의 말이 공허하고 빈약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자신의 안전한 태두리 안에서 어떠한 위험도 느끼지 않는 자의 오래된 말하기 방식, 즉,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고작 '타인의 고통을 소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 그 때문에 나는 그가 내뿜은 자본 비판의 말이 불편한 것이다.

성매매에 관한 수많은 영화가 있다. 탈성매매하려는 여성을 다룬, 성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밀바다 인생을 사실 없이 그린다면 성매매를 구원의 메타포로 전유(?)하려는, 한 성매매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또는 한 남자의 사랑으로 신데렐라가 되는..... 이렇게 성매매에 관한 무수한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것은 뭔가 이야기해야 할, 그래야만 할 사안임을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무엇을 재현해야 하는가? 누가 그 재현을 하고 있는가? 그 재현은 무엇을 위함인가?... 멈춰지지 않는 의문에 먹먹함을 느낀다.

성매매를 재현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실재와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가 내포하는 것, 즉, 실재와 재현 사이 매워지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재에 대한 재현이 갖는 무기력함과 다름 아니다.

'그래 좋다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어쩔고 하라고... 근데 그래서 뭐가 어땠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그녀의 삶은 무슨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겠지. 그치만... 그게 끝이야 님 사람이 있다고...'



<http://blog.naver.com/kyahq/100000977420>

재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감동적이어야 그 짧은 한마디를 하게끔 만드는 것, 고작 그것인 것이다. 자꾸만 묻게 된다. 쉽게 감동하고 쉽게 물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친구의 말에 나는 한 동안 멍해있었다. 그렇다. 재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감동적이어야 그 짧은 한마디를 하게끔 만드는 것, 고작 그것인 것이다.

자꾸만 묻게 된다. 쉽게 감동하고 쉽게 물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재현을 통해 무엇인가 말하고픈 욕망을 갖고 있는 나이지만, 가끔 그 재현의 태생적 한계에 무력감을 끼곤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현의 가능성을 버리지 않는 것, 가끔 '무엇을 위해?' 이런 회의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은 왜일까? 재현에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 일지도 모르겠다.

성매매에 대한 무수한 영화들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나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재현의 무기력함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다. 이상한 결론으로 글을 마치려한다. 감동함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그러나 그 감동함에 너무 주저하지는 말자는... **2010.11.10**

by 모란 표현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이

She travel

여성역사명

여행, 사실 연애가 그러하듯이 여행도 단지 낭만화된 환상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여행이 낭만이 되어 버리는 것은 송풍을 조여 오는 일상의 딱딱함을 여행이 일순간이나마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을, 나를 옥죄는 문제들로부터 잠시라도 떨어져있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람과, 어쩌면 이제까지 일상에서의 나는 폐기처분해버리고 전혀 새롭고 낯선 곳에서 전혀 새로운 나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사람들은 여행을 꿈꾸는 것이다. 하지만 여행을 가도 자갑도록 둘러붙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나 문제들은 결코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낯선 곳에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잠시 잊고 또 모른 척 미뤄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순간순간 문제들은 오히려 나에게 더욱 깊게 파고 들어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상을, 문제를 벗어나는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그렇게 누구나 한번쯤 품어보았을 법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 두 여자가 있다. 낭만으로 포장된 그림을 수없이 떠올리지만 실제로 떠나기는 어려운 여행을, 그리고 단지 여자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핏줄과 찌름나는 짜증나는 (호박)X 같은 세상에서도 혼자서 망설이지 않고 길을 나선 두 명의 여자가 있다. 그렇게 떠난 그녀들은 낯선 곳에서 무수히 마주치는 자신을 부어잡고 또 들여다보면서 부단히 발걸음을 옮겼고, 돌아와서는 그녀들의 걸음에 실렸던 내일한 이야기들을 종이 위로 쏟아냈다.

그녀들의 여행 이야기

She travels 쉬 트래블스 라틴아메리칸다이러리 1

박정석 지음 | 효형출판 펴냄

‘여자는 선원이 되기 아주 힘들어.’

어머니는 상냥하게 말했다. 결국 어머니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

나는 뱃사람이 되지 못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선원도, 모험가도, 장래희망을 적는 칸에 해마다 할 수 없이 적어 넣었던,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그 무엇도 되어있지 못했다.

- 박정석, she travels 1권 중에서



그녀는 그 어떤 말도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것도 같다. ‘앞으로 꼭 일년간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던가, ‘브라질의 북동부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마치 ‘나는 자기 전에 찻술잔을 해요.’ 라는 말을 할 때처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너무 오래 계속된 단조롭기 짝이 없는 반복적인 생활’을 내던지고 6개월간 혼자서 남미를 여행한다.

누군가는 평생 단 한번도 해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꺼내었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마치 어제 친구에게 들은 유쾌한 농담처럼 물어 놓는다. 그녀가 남미를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확인해야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도, 언제나 트렁크 한 구석에 슬쩍 담고 다녀야했을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도, 여행 중에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되어 지나쳤을 타인들에 대해서도, 그녀의 시선과 입을 통해서라면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지만 날이 선 감각과 솔직함을 통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어 나온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글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너무 개인적이고 또 친절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무엇보다도 얼마간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박차고 나온(그래서 어려서거나 젊지 않다고 보여 질 수 있는) 그녀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런 그녀의 모습이, 이야기가 좋았다. 사람의 성향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포획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때로는 그것이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도) 유쾌하게 드러내는 그녀가, 나는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시대의 우울 최영미 지음 | 창비 펴냄



시대의 우울

그녀는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낯익은 제목의 시집을 냈던 사람이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녀가 사실은 그림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보다(그리고 최근에는 소설도 냈다고 한다) 책에는 그녀가 두 번에 걸쳐 두, 세달 간 머물렀던 유럽에서의 시간과 그곳에서 만난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하지만 힘이 있게 담겨져 있다.

이미 눈치 챌겠지만, 내가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은 내가 떠나지 못하는 여행에 대한 대리만족을 원해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낯선 곳과 사람에 대한 동경으로 그들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7월 17일,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에 나는 글랑팔레(Grand-Palais)의 벤치에 앉아 내 속의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갔던 나라와 도시들의 수를 머릿속으로 헤아려보았다. 런던 - 쾰른 - 브뤼셀 - 암스테르담, 하나 둘 셋 넷 참 어지간히도 돌아다녔구나. 다섯 여섯 일곱 나는 왜 여행을 떠났나. 여덟 아홉 생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였나. 열하나 열둘 세계를 반 바퀴나 돌았건만 결국 내 속을 헤매었구나. 지도에도 없는 나라를 찾아서.
- 최영미, '시대의 우울' 중에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다.(이런 이유라면, 굳이 '여행기'가 아니라 다른 좋은 책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보고 듣고 느끼고 온 '그들만의' 여행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인 것 같다. 그리고 여행 안에서 그들이 마주했던 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녀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내가 더 알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나와 닿아있을 '그녀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것이다.

그런 이유라면 '시대의 우울'은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다. 그녀의 이야기들은 조금은 내성적이고 (제목처럼) 서늘한 빛깔을 가지고 있어도, 그녀가 바라보았던 그림들처럼 그렇게 깊어서 울림을 만들어낸다. 또 그녀가 보고 온 그림과 걸었던 거리와, 그리고 그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달뜨거나 뜨거워지지 않지만, 그녀가 자니고 있는 치열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그녀가 만난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게 그림에 대한 시각적인 것에 대한 마음을 더하게 해주었던 것도 같다. 그래서 그녀만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림을 나는 그 위에 나의 시선을 덧칠해가며 읽을 수 있었고, 일어난 후 내가 직접 그 그림들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나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으로 그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들처럼 나도 몇 번의 여행을 했던 적이 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가족과 함께였지만, 그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만지작대는 흥터처럼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은 암의 그녀들처럼 혼자 떠난 여행들이다. 혼자 여행을 갔던 것이 대개는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던 것 같지만,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그녀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나를, 내 문제들을 끊임없이 마주쳐야 했다. 그러면서 내가 도망치거나 어떤 해결책을 바라고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마주 보기 위해서 떠나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낯선 곳에서 철저한 이방인으로, 오롯하게 혼자일 수 있는 것이 내게 그럴 힘을 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그녀들은 못 살겠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지 모를 책들을 굳이 지면을 할애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어쩌면 지금의 내가 더 잘살기 위한 여행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내 몸 한구석에 낯선 것의 서늘한 기운을 품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서, 그리고 다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나와 내 문제를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녀들처럼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면, 아니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해서 말이다.

by_ 생생